

대순사상의 공부론 고찰

나 권 수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공부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 공부라는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분석하고 그 의미 요소를 본래적 지평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공부라는 말은 송대의 유가와 불교 경전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여 한국 문화에서는 고려 말에서부터 유입 형성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문명의 보고(寶庫)로 우리의 언어생활 속 전반에 뿌리내려 지극히 보편화된 일상어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공부는 대개 지식의 축적이라는 소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전경』의 용례는 47건으로 여기에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심신으로 행하는 수행, 학습, 의례 등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공부의 전통적 의미가 충실하게 보존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증산, 정산, 우당의 공부와 종도 및 수도인의 공부가 중층적이고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순사상의 공부는 증산의 시루산 공부와 대원사 공부, 그리고 정산의 오십년공부종필과 그것으로 귀결된 시학·시법 공부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증산과 정산의 공부가 천지공사와 도수를 보는 것으로 신명계의 질서를 조화하고 천지의 운행과 구조를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 시학·시법 공부는 정산과 우당에 의해 그 법

* 대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선임연구원, E-mail: luozhi@daum.net

방이 정해진 공부로 주송 수행으로서의 의례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시학·시법 공부는 증산의 유지와 정산의 유법, 그리고 우당의 유훈을 받드는 데 동참한다는 신념을 형성하여, 199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쉽 없이 지속되는 공부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순사상의 공부론은 ‘믿는 것’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승화하여 주어진 세계로의 진입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주제어: 공부론, 시루산 공부, 대원사 공부, 시학, 시법, 천지공사, 오십년공부종필

- I. 동아시아종교의 공부론
- II. 천지공사의 초석으로서 시루산·대원사 공부
- III. 오십년공부종필로서 시학·시법 공부
- IV. 맺는말

I. 동아시아종교의 공부론

‘공부(工夫)’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일상어이다. 국어사전에
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으로 정의하고 있다.¹⁾ 이는 “배워
서 익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학습’의 사전적 의미를 풀이
한 것으로 영어의 ‘study’로 보통 인식한다. 하지만 study라는 용어는
일본어에서는 “힘써 억지로 무엇을 한다.”라는 勉強(べんきょう, 벤쿄)
이, 중국어에서는 “책을 읽는다.”라는 念書(니앤슈)가 이에 대응된다.

오히려 공부라는 말은 지식의 축적이라는 소박한 의미를 넘어 우리
의 언어생활 속 전반에 뿌리내린 지극히 보편화된 어휘 중의 하나였
다. 이를테면 『한어대사전』에서는 공부에 관해 다양하게 명시한다. ①
일을 하는 데 드는 힘과 시간, ② 시간과 힘을 쓰고 난 뒤에 얻어지는
조예(造詣), ③ 작업과 같은 말, ④ 시간(틈, 여가), ⑤ 이학가(理學家)들
이 말하는, 공(功)을 쌓고 행(行)을 쌓아 심성을 잘 보존하고 길러 가
는 것, ⑥ 일꾼, 인부(役夫) 등의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²⁾ 한편, 『설문
해자』³⁾의 ‘工과 巫’, 그리고 ‘夫와 天’의 의미 상통을 들어 ‘工夫’를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3. 11. 27. 검색).

2) 《漢語大詞典》 (http://www.kaom.net/book_hanyudacidian.php, 2023. 11. 27. 검색).

신과 인간의 상호 연관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⁴⁾ 공부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과 그 사용범위가 방대해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study’와 동일한 내포를 가진 일상 용법으로 굳어지게 된 것에 대해 개념사 번역의 근대적 희생양으로 간주하기도 한다.⁵⁾

공부라는 용어는 10세기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의 동양 전적에는 용례가 없다가 송대의 유가와 불교 경전에 ‘工夫’라는 말이 드러난다. 工은 功, 夫는 扶와 그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어떤 공(功)이 생기도록 돕는다(扶).”로 자의를 새기기도 하지만, 工과 夫라는 쉬운 한자어의 조합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난해하다. 다만, 불교의 ‘做工夫’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⁶⁾ 당대 선사어록에 “주어진 공안(公案)에 관하여 깊게 생각한다.”는 일반용법에서 기인하여 참선에 진력하거나 불도에 매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⁷⁾ 이후 공부라는 말은 송대 신유학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 선불교의 유입과 더불어 순수한 국어로서 생겨났던 것이 신유학에 주요 철학 개념으로 도입된다.⁸⁾

공부가 신유학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전거는 『근사록(近思錄)』이다. 『근사록』은 주자와 여동래가 1175년 북송시대 도학의 대표적 사상이 4인(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의 저술에서 그 학문적 요점을 주자의 입장에서 인용하여 편찬한 책이다. 책 이름 ‘近思’는 성인이 되기 위

3) 《說文解字注》(<https://www.shuowen.org>, 2023. 11. 27. 검색), 「工」, “巧飾也 象人有規架也 與巫同意”, 「巫」, “祝也 女能事無形 以舞降神者也 象人兩袂舞形 與工同意”; 「夫」, “丈夫也 从大 一以象簪也 周制以八寸爲尺 十尺爲丈 人長八尺 故曰丈夫 [注] 从一大則爲天 从大一則爲夫 於此見人與天同也”

4) ‘工’과 ‘夫’의 자의에 관한 분석은 이재호, 「대순진리회 수행의 이론과 실제」, 『신종교연구』 13 (2005), pp.107-109 참조.

5) 서명석, 「공부의 알맹이와 껍데기: 그것의 왜곡과 굴절을 바라보기」, 『초등교육연구』 17-2 (2004), p.137.

6) 《佛光大辭典》(https://www.fgs.org.tw/fgs_book/fgs_drser.aspx, 2023. 11. 27. 검색).

7) 《불교기독교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search/group?q=query%24>, 2023. 11. 27. 검색).

8) 김용옥, 「공부의 참뜻」, 『고대신문』 940호(1983. 5. 10.) 및 941호(1983. 5. 17.).

한 공부의 장으로서 일상생활의 중요성과 공부의 방법적 원리를 담고 있다.⁹⁾ 고대사회에서 성인은 천하 통치의 유능한 권력자이면서 도덕적 인격 완성자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공맹(孔孟)을 거치면서 성인 개념은 점차 배움을 통해 성취해야 할 이상적 인간의 모범, 인격 완성의 목적으로 전환한다. 유학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부분의 학자나 사상가들은 성인과 범인은 동류이므로 모두 요순과 같은 성현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을 일관되게 고수하며, 이러한 믿음을 실천 하는데 진력하였다.¹⁰⁾ 『근사록』 역시 성인이 배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고하고 분명한 논조로 주장한다.¹¹⁾ 곧 『근사록』에서 말하는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는 일상사를 벗어나지 않으며, 인간 완성의 방법 역시 고원한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부의 주제를 지식 탐구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비근(卑近)한 일상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미루어 이행하는 실천 수양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¹²⁾

한국 문화에서 보면 공부는 주자학을 받아들인 고려 말에서부터 형성되어온 말이 된다. 따라서 이 용어는 적어도 천 년 이상의 동양전통이 스며있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문명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¹³⁾ 한국에 전래하면서 공부는 노력, 수고, 공로, 시간 등을 들여 연마하는 행위 또는 그 공효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우리문화에 총체적으로 일상화되었다.¹⁴⁾ 일례로 판소리에서 득음하는 수련을 ‘소리 공부’라고 하는데, “가는 공부가 되얏서”라고 내뱉는 소리꾼의 명제는 바로 ‘공부’라는 말의 원의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인이

9) 『論語』, 「子張」,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近思錄』, 「致知」, “問如何是近思 曰以類而推.”

10) 『孟子』, 「告子」, “聖人與我同類者 人皆可以爲堯舜.”

11) 『近思錄』, 「存養」, “或問聖可學乎 濂溪先生曰可.”

12) 고대혁, 「근사록(近思錄)과 유학의 공부론: 도덕교육적 함의」, 『동방학』 22 (2012), pp.268-277 참조.

13) 서명석, 앞의 글, p.129.

14) 이광주, 「정복창의 삼일 공부」, 『대순회보』 119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pp.31-33.

사용하는 백화적 표현에서 ‘공후’는 무술이라는 좁은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단련을 통하여 달성하는 모든 신묘한 경지를 나타내는 데 이 또한, 공부의 내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⁵⁾

공부라는 용어의 차용은 동아시아 전통종교를 비롯하여 한국의 신종교에도 확인된다. 최수운(崔水雲, 1824~1864)은 동경대전에서 “나의 도는 넓고 넓지만 또 간략하기 그지없다.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별다른 도리가 아니요, 성(誠), 경(敬), 신(信) 세 글자 일 뿐이다.”¹⁶⁾라고 하여 제자들에게 성·경·신 이 세 글자 속에서 공부를 할 것을 당부한다. 소태산(少太山, 1891~1943)은 일원상을 종지로 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인 ‘삼학팔조’를 실천하는 교리 체계를 세워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일상수행의 요법’을 설교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강증산(姜甞山, 1871~1909) 성사는 공부라는 용어를 중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유지와 조정산(趙鼎山, 1895~1958) 도주의 유훈을 숭신하여 박우당(朴牛堂) 도전에 의해 창설된 대순진리회에서는 공부라는 용어의 전통적 의미를 충실하게 보존하여 종교의례로 시행하고 있다.¹⁷⁾

공부론은 공부와 관련한 제반의 논의로 여기에는 공부의 목적, 공부의 주체, 공부의 내용, 공부의 방법에 관한 논의를 포괄한다. 하지만, 공부론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요컨대 공부론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의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실 공부론에 주목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

15) 참고로 ‘工夫’의 용례를 검색하면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6,409건, 한국고전종합DB에 14,469건, 불교기독교문화유산 아카이브에 549건이 검색되어 공부의 범사용적 사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6) 『東經大全』, 「座箴」,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17) 강증산 성사, 조정산 도주, 박우당 도전 등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산, 정산, 우당으로 이하 표기한다.

왔다. 공부론은 ‘수양론’으로 불리어 왔고, 공부론보다 훨씬 안정된 개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부론의 의미와 이론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구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용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공부론’은 송대 이후의 신유학자들이 직접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그들이 ‘공부’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일궈낸 이론적 성과에 현대의 연구자들이 붙인 용어인 것이다.¹⁸⁾ 이는 연구자의 이론적 성과와 관점에 따라 공부론의 의미가 달리 정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부와 관련하여 대순사상에서도 수행·수양·수도 등으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체로 반복적 기술의 답습, 유사한 내용의 재생산, 정보 전달식 연구 등이 그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¹⁹⁾ 특히 수행, 수양, 수도 등의 밀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²⁰⁾ 예컨대 ‘수도’는 넓은 의미로 “대순진리회 수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좁은 의미로 공부·수련·기도라고 하는 수행과 관련된 몇몇 의례들”만을 한정하여 지칭하기도 한다.²¹⁾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연구는 범주 오인의 문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진다. ‘공부’라는 용어도 증산과 정산이 행한 종교적 의례에서부터 배우고 익힌다는 일반적 의미, 그리고 오늘날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학·시법 공부까지 대순사상 전반에 위치하고 있다.²²⁾ 따라서 공부의 중층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라는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분석하고 그 의미 요소를 본래적 지평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8) 유석권, 「‘공부론(工夫論)’의 이론적 정체성: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6 (2007), pp.257-261.

19)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종교연구』 73 (2013), p.162.

20) 자세한 내용은 차선근,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참조.

21) 같은 글, p.329.

22) *The Canonical Scripture*, trans.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Yeoju: Daesoon Jinrihoe Press, 2020), pp.429-430 참조.

이 글에서는 대순사상의 공부론에 대한 시론적 고찰로서 천지공사의 초석이 되는 시루산과 대원사 공부, 그리고 오십년공부종필로서의 시학·시법을 중심으로 공부의 고유성과 그 전모를 고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II. 천지공사의 초석으로서 시루산·대원사 공부

『전경』에 공부라는 용어가 사용된 구절은 총 47건이다. 이를 대략 정리하면 치천하 공부, 오십년 공부, 대인 공부, 살릴 공부, 남이 모르는 공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 술서 공부 등 다채롭다. 이 중 공부라는 용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증산이 행한 시루산에서의 공부이다. 시루산 공부는 증산이 3년간의 주유를 마친 직후이자 대원사 공부의 직전에 행한 최초의 종교적 행보이다. 증산의 대원사 공부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종교적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입산수도’이자, ‘천지대도를 깨달은 종교체험의 계기’, 아울러 ‘종교 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수행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²³⁾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시루산 공부를 통해 종래의 시각을 교정하고, 대원사 공부의 본의에 접근하고자 한다.

조선조 후기는 서세동점으로 인해 존망의 급박함이 백척간두에 놓인 누란(累卵)과 같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내외의 혼란과 민중의 동요를 수습하지 못하고 매사를 외국인에 의지하려고만 하였다. 정부의 무능함에 세태는 더욱 흉동(洶動)되고 민중의 분노는 충천하여 날로 심하여졌다. 결국 갑오(1894)년 전봉준이 동학도를 모아 학정(虐政)에 반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해 겨울 관군에게 패멸하고 만

23) 이강오,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집 제1부: 증산교계 총론, 그 연혁과 교리의 개요」, 『논문집』 7 (1966); 노길명, 「증산교 발생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증산사상연구』 2 (1975) 참조.

다. 을미(1895)년 봄 고부지방의 유생들은 동학의 패멸을 곧 세상의 평정으로 보아 두승산에서 시회를 열었다. 세도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평온하다고 여기는 유생들의 행태를 보고 증산은 비로소 광구천하의 뜻을 두게 된다. 여기에서 광구천하 하고자 한 증산의 발심이 지배층의 독주와 지배이데올로기인 유교의 기능 상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증산은 정유(1897)년 광구천하의 뜻을 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력의 길에 오른다. 세태의 인심과 속정을 살피는 삼 년간의 팔도 유력을 마치고 경자(1900)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증산은 시루산에서의 공부를 시작한다. 주목할 점은 구제창생을 위해 각지를 두루 유력하고 이어진 그의 행로가 시루산 공부라는 것이다.

시루산에서의 공부는 『전경』상 ‘공부’의 첫 용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련 전거가 소략하여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단지 호둔(虎遁)에 주위 사람들이 당황한 일, 산천이 울리도록 크게 소리 지른 일, 공부하다가 이따금 산 밑 샘터에서 우는 일, 시루산을 오르내리며 도통줄이 나온다고 외친 일 등 기묘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증산의 공부를 요술공부로 오인하였다고 하는 기사(記事)가 전해진다.²⁵⁾ 이러한 기록 가운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시 공부를 계속하셨는데 어느 날 시루봉에서 진법주(眞法呪)를 외우시고 오방신장(五方神將)과 四十八장과 二十八장 공사(公事)를 보셨도다. 이후에 상제께서 목에 붉은 수건을 걸고 쌍정리(雙丁里)에 있는 김 기진(金基鎭)의 집에 가서서 그에게 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도다. 이 집에 동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곤 하였도다.²⁶⁾

24) 고남식, 「개화기 조선사회에 대한 강증산의 현실인식과 그 해결방안 일고찰: 충효열의 열(烈)과 연관된 사도(師道)의 확립과 관련하여」, 『동아시아고대학』 68(2022), p.497.

25) 『전경』, 행록 2장 7절-11절, 예시 18절 참조.

26) 같은 책, 행록 2장 10절.

시루산 공부의 내용은 『전경』을 제외한 다른 경전에는 대체로 기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용의 소략함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공부론을 조명하는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²⁷⁾ 첫째, 광구천하에 뜻을 두고 전국을 주유한 연후에 귀결된 증산의 첫행보가 시루산 공부라는 종교적 형태로 표출됨이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순연한 종교적 법리가 필요하다는 증산의 시대인식과 진단을 가늠하게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대원사 공부 이후 신축(1901)년부터 전개되는 공사(公事)의 자취가 시루산 공부에서 발견됨이다. 증산이 진법주를 암송하고 오방신장·사십팔장·이십팔장 공사를 보았다고 하는 내용은, 증산이 본래 이러한 신명들을 임의용지하는 최고신의 위격임을 암시한다. 즉, 대원사 공부를 기점으로 증산의 인격이 신격으로 변환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선대의 교지를 불사른 후 시루산을 오르내리면서 도통줄이 나온다고 외친 행동에서 증산의 종교적 구상이 대원사 공부를 통해 설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도통은 증산의 종교체계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증산은 이러한 도통 관념을 시루산 공부 시기부터 이미 견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유를 통해 얻은 종교적 경험이 대원사 공부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체계화했다는 일부의 관점²⁸⁾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시루산 공부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팔도 주유를 통해 인식된 현실 문제를 종교적 법리로 해결하고자 한 증산의 종교적 행위이고, 대원사 공부와 천지공사 이전의 초석으로 이해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증산은 팔도 주유를 통해 당면과제의 해결방안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구제창생을 위한 증산의 쇄신책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이 아닌 형이상적 종교적 측면으로 전개된다. 적어도 증

27)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pp.65-74.

28) 노길명, 앞의 글, pp.39-40 참조.

산이 대원사 공부 전부터 구천상제로서의 자기인식이 있었으며, 삼계 대권을 특정한 계기를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님을 가늠하게 한다. 이 같은 관점을 견지하면, 대원사 공부가 갖는 본래적 의미로의 재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전경』의 공부와 관련한 두 번째 단서인 대원사 공부의 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그 이해에 접근하기로 한다.

천사(天師) 여러 해 동안 각지에 유력(遊歷)하사 많은 경험을 얻으시고 신축(辛丑)에 이르러 비로소 모든 일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할 권능(權能)을 얻지 않고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을 깨달으시고 드디어 전주 모악산(母岳山) 대원사(大願寺)에 들어가 도(道)를 닦으사 칠월 오일 대우(大雨) 오룡허풍(五龍虓風)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깨달으시고 탐음진치(貪淫瞋癡) 사종마(四種魔)를 극복(克服)하시니 이때 그 절 주지(住持) 박금곡(朴錦谷)이 수종(隨從)들었더라.²⁹⁾

상제께서 신축(辛丑)년五月 중순부터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願寺)에 가셔서 그 절 주지승 박금곡(朴錦谷)에게 조용한 방한 간을 치우게 하고 사람들의 근접을 일체 금하고 불음불식의 공부를 계속하셔서 四十九일이 지나니 금곡이 초조해지니라. 마침내 七月 五일에 오룡허풍(五龍虓風)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열으시고 방 안에서 금곡을 불러 미음 한 잔만 가지고 오라 하시니 금곡이 반겨 곧 미음을 올렸느니라.³⁰⁾

우선 대원사 공부와 관련된 기록을 비교하면 증산교단과 대순진리회 간의 상이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증산교단은 대원사 공부의 결과를 “오룡허풍에 천지대도를 깨달으시고”로 기록하였다. 반면, 두 번째 인용문에서 대순진리회는 이를 “오룡허풍에 천지대도를 열으시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증산교단이 대원사 공부를 “중전의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³¹⁾는 자각에

29) 이상호, 『대순전경』 12판 (서울: 말과 글, 2001), 2장 1절.

30) 『전경』, 행록 2장 12절.

31)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경성: 상생사, 1926), p.7.

서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고자 행한 입산수도의 결과로서 천지대도를 대각하고 권능을 확보하였다는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증산의 종통을 계승한 정산이 대원사 공부의 내용을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으로 밝히고 있다.³²⁾ 말하자면, 선천의 우주 운행을 주관한 신명과 선천 세상에 관련한 모든 신명을 불러 49일 동안 심판하였고, 이들의 역할과 위치를 재정위함으로써 새로운 천지대도를 열었다고 하는 독창적인 해석을 구축한 것이다.³³⁾ 아울러 이러한 해석을 유명으로 종통을 이어받은 우당이 『전경』을 감수하며 반영함으로써 대순신앙으로 정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철은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종통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³⁴⁾에서 증산교단에서 간행한 경전과 문헌을 일괄 조사 분석하여 대원사 공부에 나타난 ① 공부동기 ② 공부장소 ③ 공부기간 ④ 공부방법 ⑤ 공부내용 ⑥ 공부결과 등을 비교 고찰한 바 있다. 특히, 공부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경전은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근본적인 시각은 똑같다. 즉 삼계대권을 주재할 권능을 갖지 못한 강증산께서 삼계대권을 주재할 권능을 갖기 위한 공부가 대원사 공부라는 것에 이해를 똑같이 하고 있다. ...

32) 『전경』, 교운 2장 21절, “중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백일 도수를 마치셨도다. 마치신 날이 바로 신유년 7월 칠석날이라. 그 때에야 중도들이 칠성경을 외운 뜻을 깨달으니라. 그들을 보시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계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33) 같은 책, 공사 1장 7절, “상계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계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 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 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 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러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전경』, 교운 1장 65절, “상계께서 말씀하시길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 수운을 선도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교의 종장으로, 주 회암(朱晦庵)을 유교의 종장으로, 이마두(利瑪竇)를 서도의 종장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셨도다.”

34) 박용철,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종통(宗統)의 천부성(天賦性)에 대한 고찰」,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회보』 6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어느 경전도 강성상제를 우주의 최고 신격을 가진 인간 ‘하느님’로서의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강성상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³⁵⁾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진리회는 여타의 증산교단 보다 최고신의 인신강세(人身降世)라는 입장을 더욱 충실히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대원사 공부를 초월적 능력의 획득 또는 종교적 각성의 계기로 예단하여 종교체험을 이룬 전환점으로 단정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지식에 전국을 주유하며 얻은 경험을 정리하여 새로운 종교의 사상체계를 확립한 기간으로 해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의 종교사상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표층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대원사 공부를 시루산 공부와 연맥하여 살펴보면, 증산의 권능은 대원사 공부 이전부터 본유(本有)한 것으로 특정 계기를 통해 체득하였거나 보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루산 공부는 증산이 주유를 통해 목도한 현실 문제를 종교적 법리로 해결하고자 한 종교적 행보의 시작으로, 대원사 공부는 천지대권의 소유주라는 자기인식과 권능을 토대로 비겁에 쌓인 신명과 재첩에 빠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천지공사의 예비 작업으로 조명하는 것이, 대순사상 전반을 인식하고 보다 대순신앙에 근접한 이해일 것이다.

Ⅲ. 오십년공부종필로서 시학·시법 공부

시루산 공부와 대원사 공부 이후 증산의 종교적 구상은 원의 본래적 해소로서 해원을 지향하는 전대 미증유의 대역사인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로 정립된다. 천지공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5) 같은 글, p.106.

독특한 구조와 방법으로 구현된 공사들로 이어져 그 의미를 명확히 해독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릇된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고 만고의 원한을 푸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를테면,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재조정하여 결원(結冤)을 해원으로, 상극을 상생으로 전환하는 천지인 삼계의 개벽공사이다.³⁶⁾

천지공사와 관련하여 김탁은 “기존의 창시자들이 이상사회를 정신적 차원에서 설정하거나 죽음 뒤의 이상향으로 관념화시킨 데 비해, 증산은 현재의 사상을 바꾸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상을 이루어 나가자고 외친 사상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했으며,³⁷⁾ 배규한은 천지공사는 “해원상생의 방법이자 실행기제”로서 인간과 세계의 참상을 근원적이면서도 항구적으로 해소하는 공사로서 “증산을 상제로 믿게 한 신앙적 근거이며 대순사상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원천”으로 정의하였다.³⁸⁾ 즉, 천지공사는 근본적 질서의 개정(改定)을 통해 원율이 풀리고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을 이루고자 한 현실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최고신 상제의 권한을 전제한다. 그렇다고 해서 증산이 자신의 독단으로 처결한 것은 아니다. 요컨대 독단이 아닌 주관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수를 확정하였다. 증산은 공사를 행할 때마다 신명을 불러 참여하게 하였으며, 그 사안과 관련된 종도를 공사에 직접 참관하게 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확정된 공사의 내용을 일일이 되묻고 확인하여 공사의 결정을 확신하게 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확증한 공사의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대순’으로서의 가치 부여를 하였다.³⁹⁾ 이상의 과정을 볼 때 공사를 주재하는 증산과 사안을 논의하는 신명, 그 결정에 참가하는 인간이 함께할 때 비로소 도수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⁴⁰⁾

36) 『대순진리회요람』, p.8 참조.

37) 김탁, 『증산 강일순』(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p.31.

38) 배규한, 「해원상생사상의 평화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 『대순사상논총』 40 (2022), p.7.

39) 『진경』, 교운 1장 8절·64절.

여기에서 증산은 일련의 공사로 확정된 도수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시간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⁴¹⁾ 자신의 일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삼천(三遷)이라는 시간의 간극과 대두목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산의 이 같은 언설은 증산 화천 후 증산의 유지를 자신이 계승하고 떠나가야 한다는 중통 계승의 소임을 자각하게 한다. 이는 무수한 교단의 조직으로 이어지고, 치천하(治天下)하라는 증산의 교시⁴²⁾를 받드는 고유한 종교운동으로 전개된다. 증산교단은 단시간에 가장 많은 숫자로 분열한 세계 종교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교단으로 평가한다.⁴³⁾ 이 장에서는 공부론과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전신으로 무극도를 창도한 정산의 공부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정산은 조부로부터 이어진 배일사상의 가풍 속에서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자라났다. 경술국치가 결정단계에 이르자 정산은 기유(1909)년 15세에 부친과 함께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하여 구국운동에 활약하였다.⁴⁴⁾ 하지만, 항일운동 과정에서 정산은 고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소용돌이치는 세태 속에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큰 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정산은 도력으로 구세제민할 뜻을 정하고 입산공부에 진력한다. 9년간의 공부를 통해 정산은 정사(1917)년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하였다. 이때 정산이 행한 ‘공부’는 결국 증산의 삼계대순 진리를 감오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산이 자신의 득도를 감오로 표현한 것은 그가 증산을 친견하거나 그의 교설을 간접적으로도 전해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감오득도 이후 정산은 다시 증산으로부터 두 차례의 계시를 받는다. 하나는 구세제민의 주문을 받은 것이며,⁴⁵⁾ 다른 하나는 조선으로 돌아가 태

40) 윤용복, 「대순진리회 신관념(神觀念)의 특성」, 『대순사상논총』 21 (2013), p.21.

41) 『전경』, 공사 2장 24절, 교법 3장 7절, 예시 16절.

42) 같은 책, 행록 3장 31절.

43)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권3 (서울: 집문당, 1991), pp.114-115.

44) 『대순진리회요람』, pp.11-12 참조.

45) 『전경』, 교운 2장 7절, “도주께서 어느 날 공부실에서 공부에 전력을 다하시던 중 한 신인이 나타나 글씨 쓰인 종이를 보이며 「이것을 외우면 구세 제민(救世濟民)하

인에서 자신의 실체를 찾으라는 명을 받은 것이다.⁴⁶⁾ 이러한 종교적 감오와 두 차례 계시는 이후 전개되는 정산의 고유한 종교활동에 토대가 된다.

정사년 4월 귀국하여 진행되는 정산의 종교 활동은 증산을 직접 보고 따랐던 친자(親炙)종도의 행보와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것이었다. 친자종도에 의해 조직된 교단은 대체로 체계화된 교리가 부재하거나 교리의 일관성보다는 시의에 따라 변용되는 경향을 보였다.⁴⁷⁾ 무엇보다 후천의 도래가 증산의 천지공사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믿기만 하면 선경의 복락을 받게 된다는 기대심이 근거에 자리하고 있어 증산이 주창한 해원사상과 인존사상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⁴⁸⁾ 반면, 정산은 해원상생 대도의 진리를 설법하고 대원사 공부의 진의를 밝히는 등 증산이 짜 놓은 도수를 도수에 맞게 현실화하는 부단한 공부를 실행한다.

정산이 1917년부터 1925년까지 행한 공부는 우일제의 공부(1917), 부안변산 굴바위의 공부(1919), 재실에서의 불면불식 공부(1920), 대원사의 백일도수(1921), 재실에서의 치성과 공부(1921), 밀양 종남산의 둔도수(1923), 청도 유천의 단도수(1923), 청도 적천사의 단도수(1923), 밀양 종남산의 폐백도수(1924), 함안 반구정의 폐백도수(1924) 등이다. 이후 정산은 을축(1925)년 무극도를 창도하고 증산을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는 한

리라]고 말씀하시기에 도주께서 예(禮)를 갖추려 하시니 그 신인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글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었다.”

46) 같은 책, 교운 2장 8절, “그 후에 도주께서 공부실을 정결히 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받들고 밤낮으로 그 주문을 송독하셨도다. 그러던 어느 날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는 명을 받으시니 이때 도주께서 이국명 만주 봉천에 계시셨도다.”

47) 홍범조,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pp.93-96 참조.

48) 윤이흠, 앞의 책, p.164, 윤이흠은 증산교단의 초기 분열 요인을 외부자극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사상의 통일적 기반의 부재로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정산의 교리제정(1925)은 친자종도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며, 그 교리체계는 대순진리회에 일관되게 계승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편, 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제정하여 신앙의 골격을 마련한다.

이러한 정산의 공부는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도수에 의한 공부로 볼 수 있다.⁴⁹⁾ 『전경』 교운 2장의 기록에 의하면, 정산의 공부는 종단의 창설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져 화천하기 직전까지 지속된다. 무술(1958)년 정산이 우당에게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할 때에도 불면불휴의 백일도수를 행하고 자신의 종교적 여정을 ‘오십년공부종필’로 천명한 것은, 증산이 물샷틈없이 짜놓은 도수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산의 공부였음을 시사한다.⁵⁰⁾

현재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서는 시학과 시법 공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공부는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주문을 송독하는 것이다.⁵¹⁾ 이는 정산이 오십 년 공부 끝에 이룩한 유일무이한 진법(眞法) 공부이자 진법(陳法) 공부로서 후천의 우주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⁵²⁾ 이에 오늘날 종단의 공부는 정유(1957)년 정산의 설법에 따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증산과 정산의 공부가 천지공사와 도수를 보는 것으로 신명계의 질서를 조화시키고 천지의 운행과 구조를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했다면, 수도인의 공부는 주로 증산과 정산에 의해 그 방법이 정해진 주송 수행 및 의례를 의미한다.⁵³⁾

도주께서 이해 十一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三十六명으로 하며 시학은 五일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十五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四十五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49) 『전경』, 교운 2장 44절·48절.

50) 같은 책, 공사 3장 37절, 교운 2장 66절.

51) 『대순진리회요람』, p.18; 대순진리회의 모든 의례에서 주문은 핵심적인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대순 신앙의 주문에 대한 학문적 고증은 박상규, 「대순 신앙의 주문 변화: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4 (2023) 참조.

52) 이재호, 앞의 글, pp.109-110.

53) *The Canonical Scripture*, op. cit.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써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울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다.⁵⁴⁾

매 공부는 지정된 인원 36명으로 구성하여 1일 24시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공부인원은 시학원, 정급, 진급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 구성하고, 해당 직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또한 책임자는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한다.⁵⁵⁾ 공부는 기도, 수련과는 달리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종교행동으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보다 더 강한 책무와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참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부를 진행할 때 성공적인 수도를 하였다고 보며, 이는 수도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한다고 믿는다.⁵⁶⁾

대순진리회 수도의 목적은 도통(道通)이다.⁵⁷⁾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공부는 바로 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신과 인간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경지를 도통으로 명시한다. 이와 관련해 우당은 도통은 신명이 응하는 것이며, 신명은 바르게 닦은 사람에게 응한다고 훈시하였다. 이어서 바르게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유리알과 같이 맑고 깨끗하게 닦아 일심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⁵⁸⁾ 도통은 대순신앙의 목적으로 단순히 정신적 깨달음의 차원이 아닌 모든 면에

54) 『진경』, 교운 2장 62절.

5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돈구 외, 「대순진리회의 연중 종교생활」, 『한국 종교교단 연구』 XI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pp.33-40 참조.

56)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pp.220-222.

57) 『대순지침』, p.37.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8)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35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p.2.

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지이다.⁵⁹⁾ 말하자면, 인간이 천지와도 같아져 신이 주도했던 우주운행을 인간이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천지에 부여되었던 신격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고유한 가치로서 상합하는 인존(人尊)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형성하게 한다. 증산이 주창한 인존은 휴머니즘이나 인본, 인도주의적 사고와는 궤도를 달리 한다. 곧 천존(天尊)과 지존(地尊)에 집중되었던 가치를 인간을 통해 새롭게 부각한 것이다. 그 결과 신·인이 조화된 새로운 인간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고귀하고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천지공간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된다. 동아시아종교가 공부를 통해 ‘군자’라는 이상적 인격의 모범을 회구했다면, 대순진리회의 공부는 여기에 ‘도통을 한 군자’를 가미해 도덕성을 겸비하면서도 무불통지·무소불능의 능력을 행사하는 신인조화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⁶⁰⁾

IV. 맺는말

공부는 시대를 초월하고 사상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오늘날 공부라는 용어는 과거와 현재가 격절된 용어로 축소되었다. 그런데 대순사상에서는 공부라는 용어의 전통적 의미가 충실하게 보존되어 나타난다. 『전경』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공부’이다. 이 공부는 증산의 시루산 공부와 대원사 공부에서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남이 모르는 공부’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로서 그를 따르던 종도들에게 훈시로 사용된다. 정산의 경우에는 정사

59) 『전경』, 교운 1장 34절, “...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日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60) 차선근, 『현대종교학과 대순사상: 비교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박문사, 2023), pp.253-260 참조.

(1917)년 이전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하기 위한 공부와 이후 증산이 짜놓은 도수를 풀어나가는 공부로 나뉜다. 무엇보다 정유(1957)년 시학공부와 시법공부를 제정해 오십년 공부의 결실로서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이룩할 수 있는 진법(眞法)으로서 진법(陳法)을 마련하였다.

주지하듯이 천지공사는 증산의 세계인식을 근간으로 진행된 일련의 종교운동이다. 천지공사를 관류하는 요체는 선천 세상의 운행질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후천의 도수를 재조정하는 천지인 삼계의 개혁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를 풀어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결원을 해원으로 상극을 상생으로 전환하는 자연 질서의 개정을 통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증산은 자신을 구천의 상제이자 개혁의 주재자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개혁의 실효성을 주지시켰다.

여기에서 증산은 천지공사에 능동적 주체로서 인간의 참여를 독려한다. 천지공사에 최고신 상제의 권한이 전면 부각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은 제한되고, 피동적 존재로 정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증산은 천지공사에 종도들을 직접 참관하게 하였으며, 독단이 아닌 주관자의 입장에서 공의(公議)를 통해 도수를 확정하였다. 무엇보다 일의 성공 여하가 하늘이 아닌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하여 이들의 자의식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커다란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즉, 증산은 천지공사에 인간을 동참하게 하여 공사의 신뢰감과 후천선경 도래의 희망을 가져다주었고, 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종교적 삶으로 전향하게 하여 종교운동의 파급력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3대 기본사업은 포덕·교화·수도로써 종교적 목적달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종교활동이다. 이 중 ‘수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부’는 집단적 종교행동으로 ‘도통’이라는 수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가치 지향적 활동이 그 특징이다. 증산의 언설을 살펴보면 “일이 마땅히 왕성해지는 것은 천지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기 때문에 천지가

사람을 낳아 쓴다.”⁶¹⁾라고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 었지만,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⁶²⁾라고 하여 천지공사의 향방이 인간의 중추적 역할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곧 천지인 삼계가 개별적 객체로 유리된 것이 아님을 밝혀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학·시법 공부는 증산의 유지와 정산의 유법을 받드는 데 동참한다는 신념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신념은 199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쉬 없이 지속하는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대순사상의 공부론은 ‘믿는 것’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승화하여 주어진 세계로의 진입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를 지향한다(교운 2장 41절, 布喻文)는 데 그 특징이 있다.

61) 『진경』, 교법 3장 47절,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62) 같은 책, 교법 3장 35절.

【참고문헌】

- 『論語』, 『孟子』, 『近思錄』, 『東經大全』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6.
-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종교연구』 73, 2013.
- , 「대순진리회의 연중 종교생활」, 『한국 종교교단 연구』 XI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 고남식, 「개화기 조선사회에 대한 강증산의 현실인식과 그 해결방안 일고찰 : 충효열의 열(烈)과 연관된 사도(師道)의 확립과 관련하여」, 『동아시아고대학』 68, 2022.
- 고대혁, 「『근사록(近思錄)』과 유학의 공부론: 도덕교육적 함의」, 『동방학』 22, 2012.
- 김용옥, 「공부의 참뜻」, 『고대신문』 940호(1983. 5. 10.), 941호(1983. 5. 17.)
- 김 탁, 『증산 강일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노길명, 「증산교 발생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증산사상연구』 2, 1975. 대순진리회 출판부,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35,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 박상규, 「대순 신앙의 주문 변화: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4, 2023.
- 박용철,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종통(宗統)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회보』 6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 배규한, 「해원상생사상의 평화적 가치와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0, 2022.
- 서명식, 「공부의 말맹이와 껌데기: 그것의 왜곡과 굴절을 바라보기」, 『초등교육연구』 17-2, 2004.

- 유석권, 「‘공부론(工夫論)’의 이론적 정체성: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6, 2007.
- 윤용복, 「대순진리회 신관념(神觀念)의 특성」, 『대순사상논총』 21, 2013.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권3, 서울: 집문당, 1991.
- 이강오,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집 제일부: 증산교계 총론, 그 연혁과 교리의 개요」, 『논문집』 7, 1966.
-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이광주, 「정복창의 삼일 공부」, 『대순회보』 119,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경성: 상생사, 1926.
- _____, 『대순전경』 12판, 서울: 말과 글, 2001.
- 이재호, 「대순진리회 수행의 이론과 실제」, 『신종교연구』 13, 2005.
- 차선근, 「대순진리회 수행 연구의 경향과 과제」, 『대순사상논총』 24-1, 2014.
- _____, 『현대종교학과 대순사상: 비교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박문사, 2023.
-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 The Canonical Scripture, trans.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and Culture, Yeosu: Daesoon Jinrihoe Press, 2020.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 《漢語大詞典》 <http://www.kaom.net>
- 《佛光大辭典》 <https://www.fgs.org>
- 《說文解字注》 <https://www.shuowen.org>

■ Abstract

A Study on the Holy-Works Theory of Daesoon Thought

Na Kwon-soo

Senior Researcher,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Daeji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usage of holy works (gongbu), and understand its significant elements from their original context as a temporal research in relation to the holy-works of Daesoon Thought. The term ‘gongbu’ emerged in the Confucian sphere and Buddhist scriptures during the Song dynasty, and it was introduced to Korea at the end of the Goryeo period. Over time, the term became a conventional expression embedded in our practical language, spanning both past and present as a cultural repository. However, in contemporary times, the term ‘gongbu’ is often used with a more universal meaning, referring to ‘accumulated knowledge.’ In the meantime, the usage of *The Canonical Scripture* amounts to 47, encompassing entire physical and mindful activities such as cultivation, learning, ritual, etc., all aims at achieving a specific goal. The traditional meaning of these activities appears to be well-preserved. For instance, the holy works of Jeungsan, Jeongsan, and Wudang, as well as those of the disciples and devotees, are utilized in diverse ways.

Specifically, the holy works in Daesoon Thought can be concretely identified in Jeungsan's Holy Works at Mount Steamer-on-Cauldron (Siru-san) and Great Court Temple (Daewon-sa), as well as Jeongsan's completion of a 50-year holy works, which resulted in the holy works in Sihak (Serving the Teaching) and Sibeop (Serving the Dharma). The holy works of Jeungsan and Jeongsan involve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and re-calibrate the Degree Numbers (dosu), representing acts that harmonize the order of the divine realm, and regulate the operation and structure of Heaven and Earth. On the other hand, the holy works of Sihak and Sibeop constitute a set of practices determined by Jeongsan and Wudang, signifying a ritualistic performance through reciting incantations. Above all, the holy works of Sihak and Sibeop form a belief in participating in the maintenance of Jeungsan's will, the virtuous practices of Jeongsan, and the teachings of Wudang, serving as the driving force behind continuous holy works from 1991 to the present day. In essence, the theory of holy works in Daesoon Thought emphasizes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ransitioning from 'belief' to 'practical application,' aspiring not just to enter the given world but to co-create a world together.

Keywords: theory of Holy Works, Holy Works on Mount Steamer-on-Cauldron (Siru-san), Holy Works at Great Court Temple (Daewon-sa), Sihak (Serving the Teaching), Sibeop (Serving the Dharma),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completion of 50-year Holy Works